

공익성에 초점... 주요 고객은 정부·공공기관

법무법인 지평 입법지원팀의 주요 고객은 정부와 공공기관이다. 입법지원팀 활동을 공익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통일부를 도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을 제정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해 향후 개정 방안까지 마련해 두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 전면 개정과 개성공업지구 내 관련 법규 제정 작업에도 힘을 보탰다. 여기에 토지소유권 법제와 소유권 보상법제 등 통일 후 법률에 대한 연구작업으로 통일부와의 협업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뿐 아니라 각종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의 입법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2011년에는 지식경제부와 한국투자증권을 도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참여해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의 방법과 범위, 절차를 명확하게 개선했다. 또 같

개성공단 지원 등 남북교류 관련법 제정 한몫 해외자원개발법 개정작업 참여... 절차 등 개선 동남아 등 해외 입법지원분야로 외연도 확대

은 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도와 국내 중소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지난해 초부터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제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 법은 수익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목표로 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현재 3건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평 입법지원팀은 현재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조만간 그 성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해 법 제정을 도울 계획이다.

지평 입법지원팀은 공익을 추구해온 입법지원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입법지원분야로 외

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자본시장시스템과 은행시스템 관련 입법수요가 많은 동남아시아를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이미 지난 2009년 캄보디아의 요청을 받은 한국거래소를 대리해 캄보디아 증권거래소 설립을 위한 관련 입법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험과 함께 동남아시아 전역에 퍼져 있는 지평 해외 사무소를 활용해 해외 입법지원사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지평은 현재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동남아 주요국가에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다.

지평 입법지원팀 구성원들은 스스로를 입법지원 분야의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이라 부르고 있다. 비록 대중에게 널리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케이티앤지(KT&G) 서대문타워 10층 지평 회의실에 모인 지평 입법지원팀 구성원들. 왼쪽부터 민창욱·안상훈·김진권 변호사, 김지형 고문, 이공현 대표, 임성택·김우연 변호사, 구상수 회계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다른 로펌의 입법지원 역량을 능가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자신하는 이유는 지평 입법지원팀이야말로 △법조문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다양한 입법지원 경험 △입법과정 전체에 대한 이해라는 3박자를 고루 갖춘 팀이라고 자부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관을 지낸 이공현(66·사법연수원 3기) 대표변호사와 대법관을 역임한 김지형(57·11기) 고문변호사는 법조계의 대선배로서 법조문의 한계와 문제점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으로 입법지원팀을 이끄는 정신적 지주다. 통일과 행정, 복지 등 다

양한 분야에서 입법지원활동을 펼쳐온 임성택(51·27기) 변호사는 팀의 실질적인 살림꾼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정책보좌관 등 국회에서 10년간 입법업무로 다뤘던 김진권(51·변시2회) 변호사는 입법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팀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금융감독원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행규(43·28기) 변호사와 법무부 국제법무자문위원으로 활약 중인 류혜정(46·34기) 변호사, 국회보좌관 출신의 김우연(32·변시2회) 변호사 등도 팀의 기동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